

의 복합요법을 받은 환자는 22명이었다. 진단시 원격전이가 있던 환자와 근치적 목적의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존 환자의 최소 추적 기간은 32개월이었다. 전체 환자중 12례(55%)가 T4 병변, 18례(82%)가 제4병기였으며 미분화암이 15례(68%), 편평상피암이 7례(32%)였다. 21례(95%)에서 완전관해의 결과를 얻었고, 이중 7례(33%)에서 재발되었다. 재발된 7례 중 3례(50%)에서 원격전이를 보였으며, 5례에서 항암화학요법으로 재치료를 시도하였다. 전체 환자의 5년 생존율은 68%였다.

## 23

### 고정된 경부 림프절전이에 대한 술전 방사선조사후 수술법의 선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최종욱\* · 정광윤 · 김용환  
석윤식 · 김경현

고정된 경부 림프절전이는 피막에 침범이 있어 주위 조직으로 침습이 심하고, 5cm 이상의 크기에서 치료법의 선택에 한계가 많으며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경부의 고정 림프절전이에 대한 치료성적을 높이는데 도움을 얻고자 최근 10년간 26례에 대하여 술전 방사선조사 후 잔류된 전이암의 치료를 위하여 제한적 또는 광범위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던 경험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술전 방사선조사후 병리조직학적 절제 만족도는 65% 이었다.

2) 잔류암에 대한 제한적 경부청소술이 광범위 경부청소술에 비하여 술후 이환율을 줄일 수 있었고, 완치율 또는 구제율도 차이가 없었다.

3) 고정된 림프절전이에 대한 적극적인 병합요법으로 34%의 완치율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경부 림프절전이의 치료에 술전 방사선 조사는 원발병소의 치료는 물론 제거곤란한 고정된 전이절을 어느 정도 제거 가능하게 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한 방법이며, 수술법의 선택은 원발병소의 상태와 잔류암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술하되 제한적 경부청소술에도 이환율을 줄일 수 있어 고려하여 불만한 방법이다.

## 24

### 후두유두종에서 One Hour In Situ Hybridization에 의한 인형 유두종바이러스의 검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관수\* · 조재식 · 이종원

후두 유두종은 주로 인형 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양성 후두종양과는 달리 수술적으로 제거해도 자주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후두 유두종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이러스의 배양 및 동정,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 또는 항체, 그리고 바이러스의 핵산을 검출하는 것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면역조직화학과 분자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인형 유두종바이러스의 검출이 보다 빠르고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주로 자궁 경부의 유두종에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저자는 소아형과 성인형의 후두 유두종에서 주로 어떤 형의 인형 유두종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으며 또 검출률은 어느 정도이고 조직내의 감염 위치는 주로 어느 부위인가 등을 알기 위해 최근 7년간 병리조직학상 후두 유두종으로 확진된 22례의 파라핀블록을 면역조직화학적 방법과 one hour in situ hybridization법을 이용하여 인형 유두종바이러스를 검출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면역조직화학적 방법에 의한 결과는 22례중 6례에서 인형 유두종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한편 in situ hybridization(ISH)법에 의한 결과는 22례중 19례(86.4%)에서 인형 유두종바이러스 6/11형 probe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성인형 14례중 11례(78.6%)와 소아형 8례 모두에서 인형 유두종